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선호 물가지수 상승세 완만...소비자 지출 양호
- Bloomberg: '연준, 다음 주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시사할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랠리...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 Bloomberg: BofA, "미 경제 둔화되면 빅테크 종목 악화"

[미 대선]

- Bloomberg: 월가, "트럼프 당선되면 원유가 하락"
- Bloomberg: 해리스, 전당대회 앞두고 부통령 후보 지명자 물색 중

[에너지]

- Bloomberg: 중국의 저성장, 석유 수요 전망에 먹구름
- CNBC: 미 경제 호조에 유가 상승... 아시아 경제 우려에 제한적
- CNBC: 중국 수요 우려 속 미국 원유, 3주 연속 하락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OpenAI, 인공지능 검색 엔진으로 구글에 도전장 내밀어
- CNN Business: 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 Bloomberg: 맥도날드, 5달러 식사로 고객 재방문 이끌어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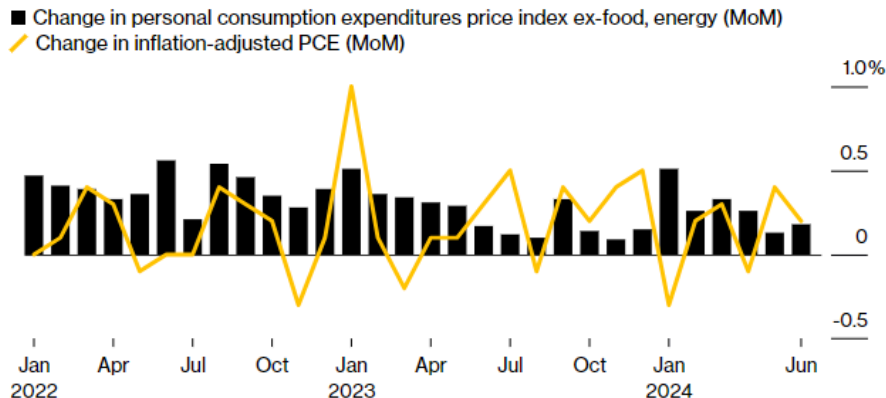
Bloomberg: Fed's Favored Price Gauge Rises at Mild Pace, Spending Holds Up

연준 선호 물가지수 상승세 완만...소비자 지출 양호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는 6월에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소비자 지출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 변동성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6월 들어 전월에 비해 0.2% 상승했고 특히 작년 동월에 비해 2.6% 상승한 것으로 연방 경제분석국은 밝혔다.
- 인플레이 조정 소비자 지출은 0.2% 상승률로 둔화되었다.

Underlying US Inflation Rises at Modest Pace

Consumer spending growth cooled in June after strong advance a month earlier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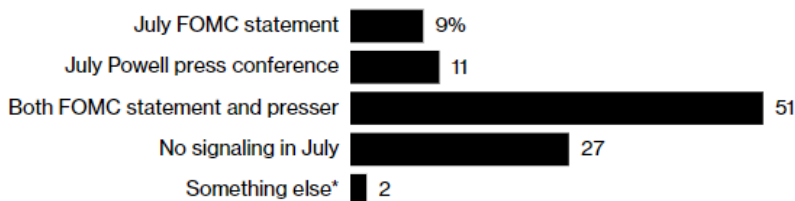
Bloomberg: Fed Seen Signaling September Rate Cut at Next Week's Meeting

‘연준, 다음 주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시사할 듯’

- 블룸버그 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연준은 다음 주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연준은 9월의 시점으로 내년까지 분기별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응답자의 3분의 2는 7월 30일-31일 회의에서 연준이 9월에 0.25%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반수는 회의 직후 정책 발표와 파월의 기자 회견에서 향후 정책을 시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다음 주 회의에서 20년 이상 최고치인 금리는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Fed Seen Signaling September Rate Cut at Next Week's Meeting

Most economists see Fed using statement and press conference to indicate change



Source: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July 22-24
 Note: Fed watchers were asked if and how Fed might signal September rate cut *Jackson Hole symposium in late August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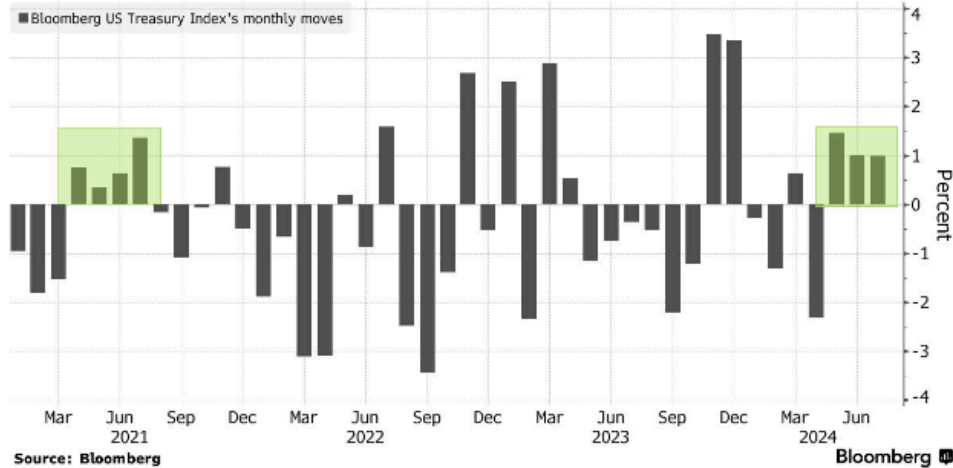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Rally as Data Backs the Case for a September Rate Cut

국채 랠리...금리 인하 가능성 높인 물가 지표 발표로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번주 혼동스러운 채권 시장에서 국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2년물 국채는 5 베이스스 낮은 4.38%, 그리고 10년물도 5 베이스 포인트 내린 4.2%로 거래되고 있다.
- 미 국채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또한 금리 스와프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다음 주 연준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되지만 9월에는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 금리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Treasuries Are Set for an Advance in July Third monthly gain would mark longest streak since 2021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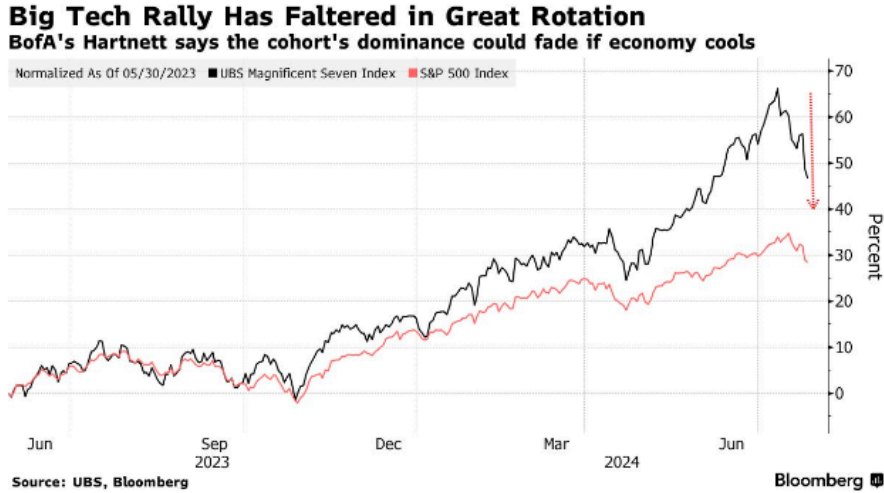
Bloomberg: BofA Says Cooling Economy Will Crack Big Tech Rally Even More

BofA, “미 경제 둔화되면 빅테크 종목 악화”

- Bank of America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계속 둔화될 경우 대형 테크 종목들의 랠리는 악화될 리스크가 있다.
- 올해 하반기에 채권 강세 입장을 보인 이 은행의 Michael Hartnett은 미 경제가 둔화 신호를 보이면 올해 주가가 크게 똬 기술 메가주들에 뒤쳐졌던 소형주들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는 것. 이미 지난 2주 동안에도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에 따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에 몰렸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최고 점으로부터 나스닥 100 지수 주가들이 시가 총액이 2조 6천억불 빠져나갔다.

- 그러나 그는 이같은 조정은 양호한 편 이라면서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스닥이 지난 7월 10일 이래 9%가 빠졌지만 2023년 10월 저점 이래 여전히 30% 이상이 상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Bloomberg: Wall Street Says a Trump Presidency Could Send Oil Prices Lower
월가, “트럼프 당선되면 원유가 하락”

- 월가의 유명한 은행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오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물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약속한 대로 미국의 오일 생산이 증가할 수는 없다 해도 그의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오일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을 각각의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 만약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내년 원유가 배럴당 11달러에서 19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고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으로 배럴당 75달러-90달러에 하방 리스크가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 이같은 예상은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60% 많으면 1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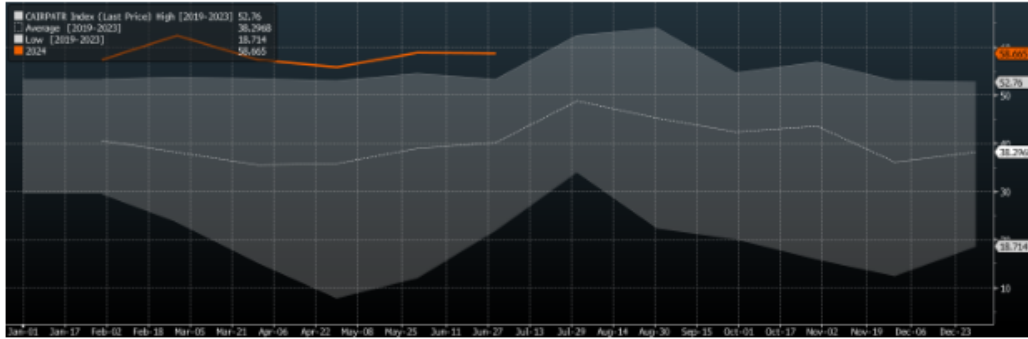
Bloomberg: Harris Focuses on Vice Presidential Search as Deadline Nears**해리스, 전당대회 앞두고 부통령 후보 지명자 물색 중**

- 민주당 대선 후보 승계자가 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러닝메이트 찾기에 나섰다.
- 해리스는 중산층과 기회 균등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은 다소 촉박한 편.
- 대선도 1백일 정도 남은 데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들은 해리스와 그의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 위해 향후 2주 내에 화상 모임으로 만날 예정이다. 투표하는 날짜는 전당대회 공동의장이 결정하는데 8월 1일에서 8월 7일 사이로 알려졌다.
-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녀의 지명을 지지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Bloomberg: China's Low-Gear Economy Dims Global Outlook For Oil****중국의 저성장, 석유 수요 전망에 먹구름**

- 중국의 경제 둔화로 올해 남은 기간 연료 소비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석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 중국의 디젤 사용량은 2024년 상반기에 4.2%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물류 및 인프라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전체 석유 제품 소비는 휘발유와 경유 수요 모두 감소하면서 하반기에 3.8% 감소할 것으로 중국 석유화학은 밝혔다.
-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명목 석유 수요는 하루 1,366만 배럴로 8%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시장 보고서를 반영한 것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은 중국의 팬데믹 이후 반등세가 약화되면서 1년 만에 가장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CNBC: Oil edges up on strong U.S. GDP data but Asia economic woes limit gains

미 경제 호조에 유가 상승...아시아 경제 우려에 제한적

- 금요일 유가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소폭 상승했다.
-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최대 경제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 9월 브렌트유 선물은 7센트 상승한 배럴당 82.44달러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9월물은 배럴당 4센트 오른 78.32달러에 거래되었다.

CNBC 기사

CNBC: U.S. crude oil on pace for third weekly decline as China demand outweighs U.S. growth

중국 수요 우려 속 미국 원유, 3주 연속 하락세

- 금요일 미국 원유는 중국의 수요 우려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보다 더 큰 상황에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 이번 주 미국 원유는 2.7% 하락한 반면, 브렌트유는 0.84% 하락했다.
- 미국 경제는 2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중국의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10.7% 감소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로 인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이 경기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월요일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목요일에는 중기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N Business: OpenAI is taking on Google with a new 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engine****OpenAI, 인공지능 검색 엔진으로 구글에 도전장 내밀어**

- 목요일 OpenAI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체 검색 엔진인 '서치GPT (SearchGPT)'를 발표했다. 이는 빅 테크 라이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 서치GPT는 웹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와 사람들이 챗 GPT(ChatGPT)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검색 엔진은 현재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OpenAI는 향후 챗GPT에 이 도구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기능을 통해 OpenAI는 수년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지배해 온 구글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다. 구글은 OpenAI가 2022년 11월 챗 GPT를 출시하며 촉발된 인공지능 경쟁에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치GPT는 작년에 OpenAI의 기술을 도입하여 구글과의 경쟁을 시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Bing)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California top court upholds ballot measure treating Uber, Lyft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 목요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의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번 판결은 차량 공유 업체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업체들은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대우해야 할 경우, 많은 기업이 해당 주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 하지만 SEIU(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와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 결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각 노동자를 직원으로 대우할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로 대우할지는 해당 업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경비 환급 및 기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업은 독립 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최대 3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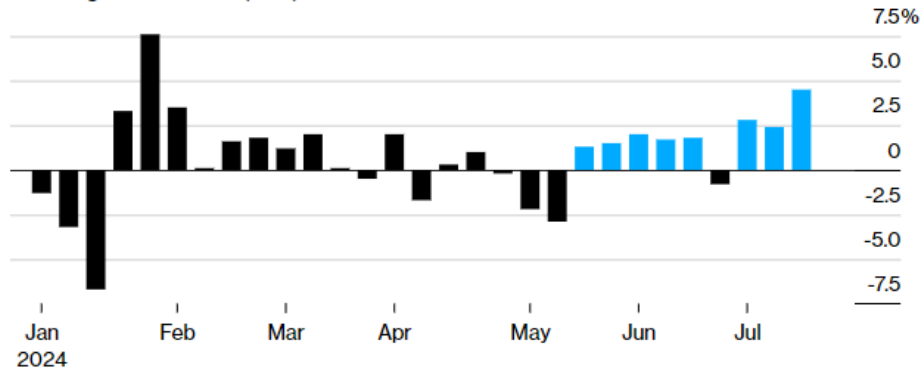
Bloomberg: McDonald's \$5 Value Meal Is Slowly Bringing Diners Back 맥도날드, 5달러 식사로 고객 재방문 이끌어내

- 맥도날드가 새롭게 선보인 5달러짜리 식사 패키지가 미국 내 방문객 수 증가와 저소득층 고객 유치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메뉴를 제공하겠다는 맥도날드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 휴대폰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5월 말 출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맥도날드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6월 25일 출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맥도날드는 당초 한 달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초기 성과에 힘입어 가맹점주들은 연장을 결정했다.
- 스티펠 파이낸셜의 크리스 오컬(Chris O’Cull)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고객들의 방문이 5월과 6월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동안 맥도날드는 저소득층 고객의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McDonald's Visits Rise On \$5 Meal Deal Buzz

Traffic largely climbed after late May following reports of the impending deal

■ Change in foot traffic (YOY)



Source: Placer.ai

Note: Placer.ai estimates visits using de-identified mobile device data. The figures are for the US only and comprise the week that starts on the indicated date.

Bloomberg 기사

美 2분기 성장률 2.8%...고금리 지속에도 탄탄한 성장세

소비·재고투자 힘입어 1분기보다 더 상승...시장 전망도 웃돌아 재고투자 '반짝 효과' 제외시 성장세 둔화 가능성

지난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소비 호조와 재고투자 증가에 힘입어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미 경제 성장세가 점차 위축될 것이란 전문가들 관측과 달리 탄탄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